

SK가스, LPG 공급가격 8% 인상

12월 kg당 97원 올려 1124.8원 ... E1도 프로판·부탄가스 가격 조정

SK가스가 LPG 공급가격을 최고 7.6% 인상한다.

SK가스는 12월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 가격을 전월대비 kg당 79원(7.6%) 올린 1124.8원으로 조정했다고 12월2일 발표했다.

자동차용 부탄가스 가격은 kg당 75원(5.2%) 올린 1517.18원(리터당 886.03원)으로 조정했다.

앞서 E1도 가정용 프로판 가스의 12월 충전소 공급 가격을 kg당 78.6원(7.5%) 올린 1121원으로 조정했다.

또 자동차용 부탄가스는 kg당 74.1원(5.1%) 올린 1515원(리터당 884.76원)으로 결정했다.

시장 관계자는 환율변동과 국제가격 등 여러가지 인상요인을 고려해 공급가격을 조정했다고 해석했다.

LPG 수입기업들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LPG 국제가격을 통보하면 매월 말이나 초에 수입가격과 환율, 각종 세금,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2/02>